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3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안내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초등부 대성전), 19:00	
			06:30 (새벽)	10:30 (교중)
			10:3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평일	06:30 (새벽)	19:00 (저녁)
	예비자교리	일요일 낮 12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 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 지역별 성모의 밤

일자	5월24일(월)
지역	4지역

- 저녁 7시부터 묵주기도 후 “도움이신 마리아 대축일” 미사 봉헌합니다.

◎ 오라토리오 “도움이신 성모마리아” 이벤트

- 5월 27일(목) 오후 12:00~17:30까지 오라토리오 학생들의 “도움이신 성모마리아” 이벤트로 인해 주차장 이용이 제한됩니다.

◎ “성가정 상”을 5월 30일 교중미사 중에 시상합니다.

구역반	세대주 성명	세대주 세례명
06구역05반	이희승	안토니오
08구역03반	조동순	엘리사벳
12구역04반	박형순	미카엘
22구역03반	김정남	루치아

◎ 알 림

- 유아 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봉성체 신청받습니다.
- 유아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식 : 토요일 오전 11시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개별 예식)
- 오늘은 헌미헌금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다음주(5월 30일)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거리두기 2단계 구역별 주일미사 참례 시간

	토요주일 19:00	새벽 06:30	교중미사 10:30	주일 낮 12:00	주일저녁 19:00
05/23	12~15 구역	16~20 구역	21~24 기타구역	1~5 구역	6~11 구역
05/30	16~20 구역	21~24 기타구역	1~5 구역	6~11 구역	12~15 구역

- 구역 외 신자 분들도 구역별 시간표에 따라 미사에 참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를 코와 턱이 덮이도록 꼭바로 착용합니다.
-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으시면 가정에서 평화방송으로 미사 참례합니다.
- “X”로 표시한 자리는 비워두고 앉지 않습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모 임

- 사목회 회의 : 5월 27일(목) 19:40 / 강당

◎ 교 육 / 강 좌

- 예비신자 교리 신청받습니다.
- 주일반, 평일반
- 사무실에서 신청 받습니다.

*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학생 및 봉사자 모집 *

- 전액 무료, 저녁 식사제공
- 후원금계좌 : 신한 131-018-937372
(사) 국제청소년지원단

*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 안내 *

본당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모든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주보대 위 수거함)
※ 2개월이 경과한 영수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주일(05/30)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04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05월12일 ~ 05월18일)

교 무 금	7,067,000원
주일헌금	3,867,400원
홍보주일 2차 헌금	832,000원
감사헌금	이은용 3만원 노OO20만원 황양임 3만원 정애자 5만원 신종구 4만원 이윤숙10만원 황정후10만원 허OO1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 설	복 사	독 서	
05/23	손진희	오성환	최상림	김덕영 김명선
05/30	이인옥	조홍환	김영균	하재민 구민서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19:00
05/23	최상남	최창열	김광수	김영배	김인기 박승환
05/30	최석준	김인기	박승환	이운영	박형순 박용환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감염병의 전 세계 확산과 역사상 또 다른 재앙들

32.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비극은 우리가 모두 같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세계 공동체라는 인식을 삼시간에 효과적으로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배 안에서 한 사람의 불행은 모든 사람에게 해가 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혼자 구원받을 수 없고 오로지 함께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에 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폭풍은 우리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우리의 일정과 계획, 습관과 우선순위를 만든 거짓되고 무의미한 확신을 밝혀냅니다. ……이 폭풍으로 늘 걸치레만 신경 쓰는 우리의 ‘자아’를 덮고 있던 고정 관념들의 겉껍질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에게 속한다는 인식, 곧 우리가 형제자매라는 피할 수 없는 그 복된 인식이 드러났습니다.”

33. 세계는 기술 발전을 활용하여 ‘인적 비용’ 절감을 추구하는 경제로 비정하게 나아갔습니다. 또한 시장의 자유가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하다고 우리를 믿게 만들려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제 밖의 전 세계적 확산이라는 이 예기치 못한 충격은 일부의 이익보다는 인간을, 모든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나고 장엄한 꿈들을 양식으로 삼았고, 주의 분산, 폐쇄, 고독을 맛보고 말았습니다. 점속에 탐닉하고 형제애의 맛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빠르고 안전한 결과를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조급함과 초조함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가상 현실의 죄수가 되어 현실의 맛과 풍미를 잃었습니다.” 감염병의 전 세계적 확산이 불러온 고통, 불확실성, 두려움, 자기 한계의 인식은 우리의 생활양식,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사회 조직, 무엇보다 우리의 존재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라는 호소를 되울려 퍼지게 만듭니다.

34.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면, 이 전 세계적 재앙은 우리가 자신의 삶과 모든 존재의 절대적 주인으로 자처하면서 현실에 자리하는 방식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일종의 징벌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에 준 피해가 결국 우리의 황포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현실 그 자체가 신음하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눈물겨운 인간사를 상기시키는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유명한 시구절이 떠오릅니다.

35. 그러나 우리는 ‘삶의 스승’인 역사의 교훈을 빠르게 망각합니다. 보건 위기가 지난 뒤에 최악의 반응은 열광적 소비주의와 새로운 형태의 이기적 자기 보호에 더욱더 빠져드는 것입니다. 부디 더 이상 ‘다른 이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배울 수 없던 또 하나의 되풀이된 심각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부분적으로 축소된 의료 체계의 영향이기도 한 인공호흡기 부족으로 세상을 떠난 노인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큰 슬픔을 헛되지 않게 하고, 우리가 새로운 생활 방식을 향하여 도약하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에게 빚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만든 장벽을 뛰어넘어 모든 얼굴과 모든 손과 모든 목소리를 아우르는 인류 가족이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36.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재화를 쏟아야 할 소속감과 연대의 공동체를 위한 공동의 열정을 되찾지 못한다면, 우리를 기만하는 전 지구적 환상이 붕괴하며 많은 이들이 고통과 공허의 손아귀에 넘어갈 것입니다. 나아가 “소비 지향적 생활양식에 대한 집착은, 특히 소수의 사람만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 때, 폭력과 상호 파괴만을 가져올 뿐”이라는 점을 어리석게도 경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각자도생’이라는 개념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빠르게 변질될 것이고, 이는 감염병의 전 세계 확산보다 더 나쁜 것이 될 것입니다.